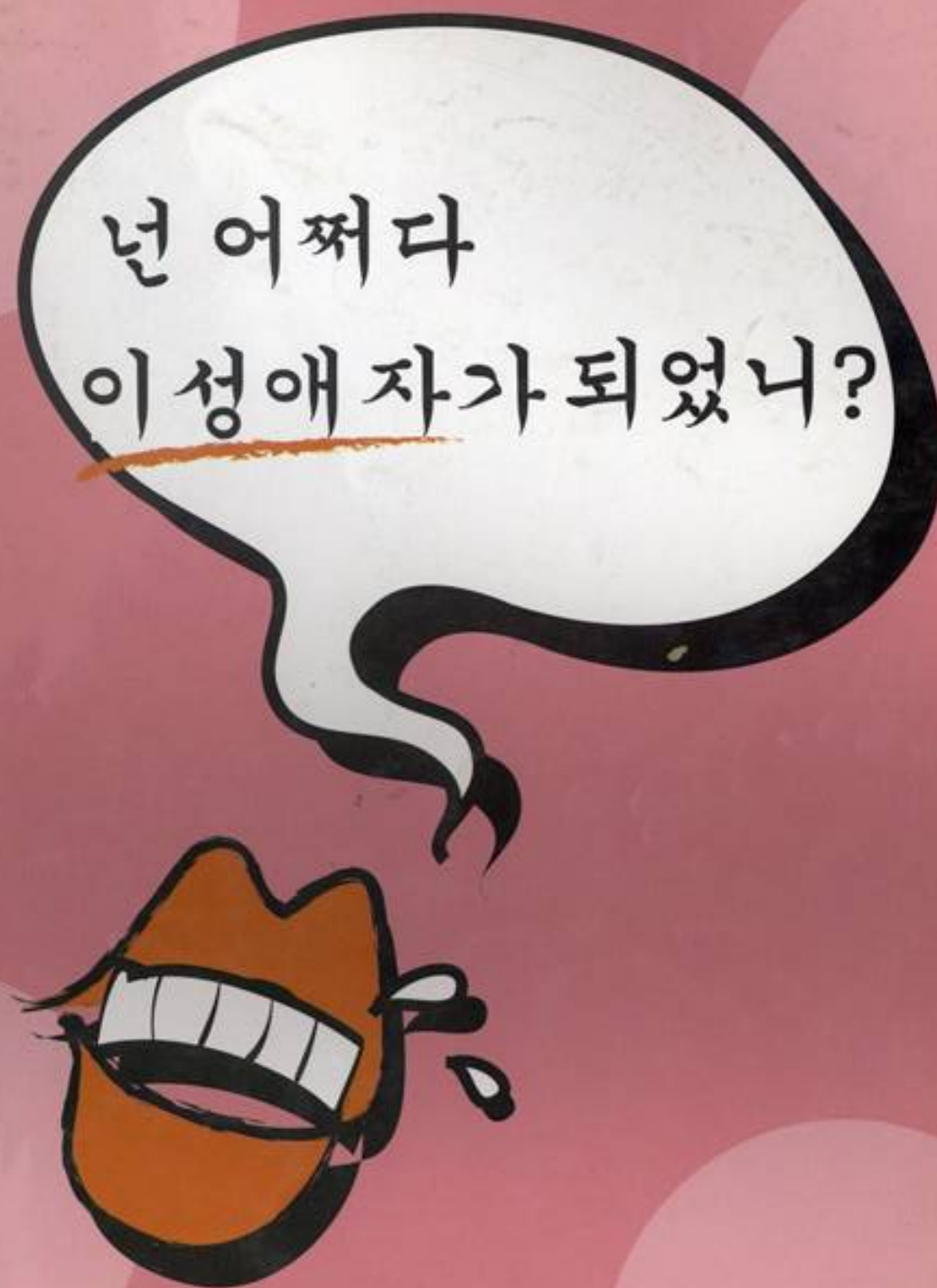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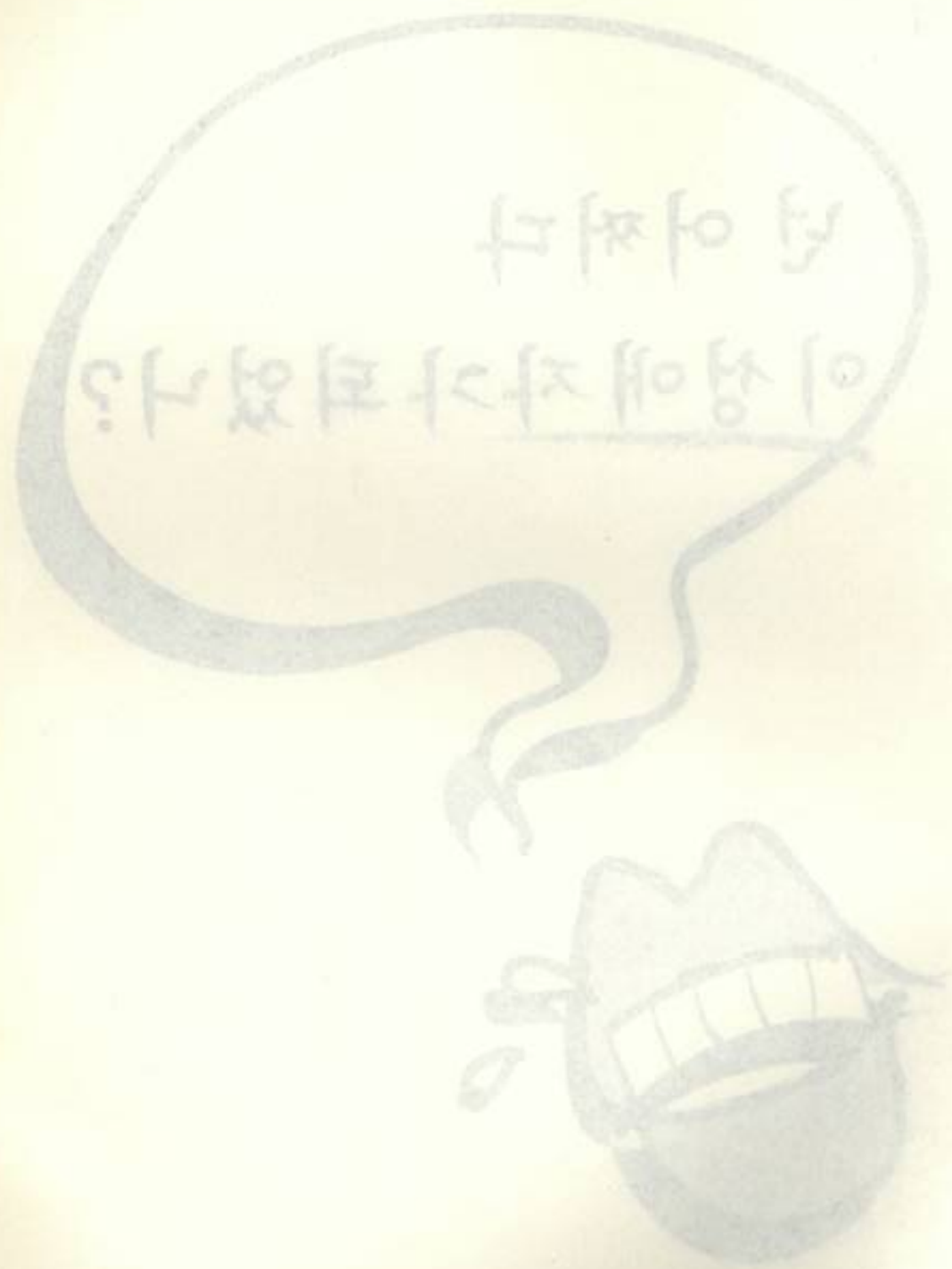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첫번째 레즈비언문화제 자료집
2003.5.13~5.15





목차

이성애자를 위해 궁금한 것	2
문화에 홍보를	3
이것은 상식이다	6
#1. 변태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호모포비아를 진단체 도립니다.	8
바위열애와 호모포비아의 공통점	11
동성애자 죽이기에 가담하고 있는 당신에	15
이웃님을 당했습니다	17
'연애'에 관한 만상	19
#2. we are the hetero phobia	
성소년 보오엄 개정과 동성애자 혐이의 죽음	20
광고	23
한 동성애자의 죽음	24
우리에게 연군이 있나? -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매체들의 시선	27
세프미언 vs 세프미언 페미니스트	31
세프미언 - 그 연애들의 에이메이를 위하여	34
그들의 종을 잘라라	39
#3. 변태 소년 하를 날다	
역상환 시나리오	40
나의 들에서 육에 갈라기 들어온 '권' 개와	44
익숙한 강애들에 대한 만상	
저는 자랑스러운 '연애소년 하를 날다' 의	46
연인난안알알소년입니다.	
난 언제부터 나를 세프미언으로 정제와 했던 것일까?	49
광고	51
맺으 루	58

이성애자들에게 궁금한 것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니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애에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 경험없이 어떻게 이성애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으로부터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성애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견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음란의 바다'로 내몰는 길이 아니니까?

요즘 이성애가 으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다 끌리나요?

당신은 이성과의 으를 사랑과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이 황당한가요?

네. 황당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지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성애자'로 바꾼 것입니다.

참고: 최 안드레아 지음,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by 휘인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문화제 홈페이지: <http://flyinggirl.com.me.kr>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동맹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후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동맹,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이화 여성위원회

기간: 2003. 5월 13-15일

장소: 이대 운동장

#1. 변태들을 구원하소서 !?!!

5월 13일 수요일

<전시>

-당신의 동성애 혐오 지수는?-(코비) 지수 테스트(화성문화관 코비)-초, 중, 고 교과서에 나타난 동성애 혐오(화성문화관 코비)-이성애자의 광고 퍼포먼스(화성문화관 코비)

<퍼포먼스>

by 이화 여성위원회, 오후 12시 15분 (화성문화관 코비)

<강연회>

변태를 프로젝트-1. '동성애 바로 알기' 박람회(끼리끼리 간사), 오후 5시 포스트로칸 253호

<영화 상영>

고 피치13일 오후 7시 만 화성문화관 앞 광장

#2. We Are The Heterophobic!!

5월 14일 목요일

<전시(자보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홍준길)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추모합니다.(문화관 앞 숲)-레즈비언페미니스트 대 레즈비언(화성문화관 앞 계단)

<강연회>변태를 프로젝트-2 미디어와 동성애 코미디를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오후 5시 포스트로칸 지하 161호

#3.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5월 15일 금요일

<전시>

-'아름답게' (홍준길 열 열) -우리의 역사, 역사 속의 성 소수자(화성문화관 앞)

<토론회>

변태 치료 프로젝트-3. 21년,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의 행복한 만남은 가능한가?

오후 5시 포스트로칸 지하 151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와레즈비언인권운동팀 '연애소녀 하늘을 날다' '연애소녀 하늘을 날다'는 모임 이름 그대로 연애소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레즈비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임 이름처럼 거창하게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했고 혐오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버들여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자치단위 인준 이전 활동

- 2001. 5 대동제-무지개 자보, 동행자도 학내 행사
장기차량 참여, 폐막제 풍다리기 참여
- 2001.5-6 내로 세미나 진행
- 2001. 7 '여성이란 인권'을 주제로(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기획위원회 공동주최)
- 2001. 9 학내 기자회견의 인력
- 2001. 9 외곽 문화제 무지개 2001 참가
- 2001. 여성이란 게 뭐니? 내 동성애 성취를 위한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참여 (기획위원회와 여학 계몽위원회 참여)
- 2001. 11 학내 폐막제 연로 '아와' 인력

#2002 자치단위 인준 이후 활동

- <2002-상반기>
- 2002. 3 학내 정식 자치단위의 인준
- 2002. 3 3.8 여성의 날 기념 학내 사업-페어보온 뽀뽀, 외곽 폐식상품 판매(소외된 기획위원회)
- 2002. 3 3.8 여성의 날 기념 무지개 시의 주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union, 기획위원회 공동주최)
- 2002. 3 페미니즘 문화제 참여 - 페어보온 기획, 자료집 글 쓰고(이와레즈비언위원회 주최)
- 2002. 4 이와 레즈비언 오픈 기획
- 2002. 4 연대 페어보온 75년 기념식 참여
- 2002. 5 페어보온 기획단 여성 기획(과연여동 등 공동주최)
- 2002. 5 이와 대동제 연로 주정 개최
- 2002. 6 외곽 문화제 무지개 2002 후원, 참가

- 2002. 6 한국대학생 신문 인력
- 2002. 6-9 외부 간사 초청 모은 세미나 진행

<2002-하반기>

- 2002. 7 한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 2002. 8 제 5회 청소년 인권 학교 주최(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평등재단 공동 주최)
- 2002. 9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오픈 기획(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5 공동기획)
- 2002. 11 중앙대 이학모임 '페어보온 리스' 영화제 참여
- 2002. 12 밝히는 영화제 개최(기획위원회 공동주최)

<2003-상반기>

- 2003. 3 생애기 동성애자 맞이 사업-동행자도와 자원자
- 2003. 3 자치단의 홍보-영상물 제작, 상영과 자료집 제작, 배포
- 2003. 3 반성문화 내로외로 페어보온-자료집, 뽀뽀 배포
- 2003. 3 3.8 여성 무지개 시의 참가(다들안들 들은 연대 주최)
- 2003. 4 연대 페어보온 75년 기념식 참여
- 2003. 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정 권고서서 성명서 발표
- 2003. 3- 외곽문화제 2003 주최위원회 결함(무지개-동행자)
- 2003. 1-동성애자 자긍심 갖기 세미나 진행 (기획위원회 간사 역할)

2003. 5 첫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너 어쩌다 여성애자가 되었니? 개최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는
비밀어린 성격의 소유자
정신병에 걸리기 직전의 사람
수없이 지살을 꿈꾸는 고독한 인간
어둠과 음침한 심마를 혼란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고 받고 즐겁게 살아가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불쌍하고 때를어갈 수 없는 힘은
가지질 원하는 누군가
방문흔 두드려 주세요.

공식 이메일: flyinggurizooi@yahoo.com

주소: 서울 서대문구 이와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219호

전화: 3277-4712

이것은 상식이다

레즈비언인 나와 수업 같이 듣고 있는, 거기 당신! 이 정돈 상식~
하는 것이 힘이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함으로 개죽당하지 않으려면, 정독하시길;

■ 동성연애자? VS 동성애자?

사람들은 '동성연애자'와 '동성애자'라는 두 단어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 그러지 두 단어를 쉽게 섞어서 쓰거나 '동성연애자'라는 단어를 남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자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숨어있다! 주의하시길!

말그대로 동성'연애'자라는 건 동성과의 성적인 경험, 행위를 전제한 단어다. 즉 동성애자를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보지 않고,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행위로 정의 내리는 것이다. 동성과의 성적인 경험이 라는 것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동성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인생의 일부분 뿐이 아닌가요? 동성과의 성적인 접촉이 동성애자인 나의 일부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나의 성 정체성을 설명해낼 수 없다!

■ 게이/레즈비언/바이섹슈얼/이반/호모

.게이(gay) :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들을 모두 뜻하는 말로, '기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동성애자 스스로를 긍정하며 붙인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레즈비언(Lesbian) :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에 여성 동성애자들이 살았다는 'Lesbos'섬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이다.

.바이섹슈얼 : 성 지향성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는 양성애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반(異性) : 이성애자인 이반과 반대되는 의미로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이다.

.호모(Homo) : Homosexual 에서 나온 단어로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일컫는 말이지만, 동성애자를 성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베타로 비하하는 단어 (사용하지 마시다!)

■ 트랜스 젠더

유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리스 때문에 '트랜스 젠더'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지만, 예전에는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의 의미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누구 양하느냐의 문제이고,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 자체가 일치하느냐 양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근본에서 써야 할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레즈비언이란 어떤 사랑인가?

사실 레즈비언이라 정체화한 사람들 안에서도 워낙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한마디로 레즈비언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 관심이 다른 여성을 향해있는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성애자가 꼭 이성간의 연애 경험이 있어야, 혹은 이성간의 어떤 성행위가 있어야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고, 내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동성간의 성적인 경험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레즈비언인 나와 상관은 없지만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당신 주변에,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솔직하고 용기있게 대응한,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 동성애자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동성애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나 논문을 보는 사람이라면, 가끔씩 터무니 없이 동성애자는 몇백만 명의 자의 어디가 일방적이고 다르다느니, 영어 많으면 영어가 된단느니, 아빠가 가부장적이면 레즈비언이 된단느니, 동성애자인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동성애자가 된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난리병서들이다.

이런식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 동성애의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지들은, 동성애가 어떤 언어를 제거하면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의 이론으로 생각하는데서 온다. 이런 지들은 동성애 혐오증 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참고자료: 비디오텍서/이반상식/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팀 기러기리 소식지/비디오텍서/이반상식

#1. 변태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호모포비아지수를 진단해 드립니다.

호모포비아(homophobia)란 근거없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증상, 태도, 사람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최근 호주 의학계에서는 호모포비아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호모포비아를 한 번 진단해 보시죠..

1. 친한 친구에게 갑자기 나. 이치의 단박이 생기면
 - 아무 생각 없다...3
 - 질투가 난다...2
2. 친구끼리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것을 보면
 - 왜 저럴까 싶다...3
 - 나도 그러는데...2
3. 예쁜 여자를 보면
 - 질투가 난다...3
 - 기분이 좋다...1
4. 내가 남자였음 재앙 사귀다...라는 생각이 드는 여자가 있다
 - YES...2
 - 동성애엔 그런 생각 안 든다.3
5.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YES...4
 - NO...2
6. 사랑의 내면은 여자 또는 남자로 완벽하게 양분할 수 있다
 - YES...4
 - NO...1
7. 계란을 먹을 때 흰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노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먹어야 나눠먹기 좋다
 - 그렇다...4
 - 그런게어딴냐...1

8. 다른 친구보다 특별히 좋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YES...2
—NO...3

9. 아무리 친해도 스킨십이 심한 동성은 변태같아 느껴진다

- YES...4
- NO...1

10.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사회가 안정된다

- YES...4
- NO...1

11. 내 아이의 선생님이 동성애자라면 아이를 맡기기 싫다

- YES...4
- NO...2

12. 동성애자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YES...4
- NO...2

13. 동성애자들 권리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한다면 심을 것 같다.

- YES...4
- NO...1

14. 여성 동성애자는 화물차로 남성에게 강간당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 YES...4
- NO...2

15. 나에게 동성애자 친구(가족, 애인 등)가 한 명도 없다.

- YES...3
- NO...2

16. 동성애자의 권리가 높아지면, 인구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

- YES...3
- NO...1

진단!

4~6장 : 당신에게 호모포비아가 아주 적습니다. 혹시 지금 애인이 동성이 아니신지..

7~9장 : 조금의 호모포비아가 있군요. 때때로 동성에게 호감이 있는데 자신만의 호모포비아때문에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거나 모르고 지나치진 않나요?

10~17장 : 동성애자를 보면 무서워하거나 거리끼는 당신, 조금 많은 호모포비아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생각이 많은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18~23장 : 극심한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계시군요. 이 자료집 읽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 이상 :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만 자리 뜹니다...

@저기 계란 얘기는 그냥 음양의 조화 어쩌구 하면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떠벌거예요...;

--BY 루키페르, 시르

바퀴벌레와 호모포비아의 공통점

-도처에 깔려 있다.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모른다.

-병을 옮기고 다닌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호모포비아들을 만난다.

강의실에서... 워낙 내용 자체가 지겨운 모 전공 수업시간.. 그래도 학생들을 배려해준답시고, 수업 중간 중간 우스갯소릴 해주시거나, 복잡한 이론들을 난데없는 실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해주시는 다정다감 우리 교수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수님이 단골로 드는 예는, 교수님 판에는 학생들이 제일로 좋아하고 친근할 꺼라 생각하는 남자 친구 이야기이다. 한참 설명을 하다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도 꼭 이렇죠? 라는 식... 그러면 교수님의 의도대로 졸던 학생들도 교수님 이야기를 좋아하며, 웃는다...

흠.. 그런데 나는 웃음이 잘 나지는 않는다. 무언가,, 멍하게 수업을 듣다가 (혹은 졸다가;) 아~ 내가 레즈비언 이었더랬지~ 새삼스레 생각이 난다. 남자친구 이야기에 관심 있는 다수의 너희들과, 동성애자인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화악~ 그어지는 순간이다. --;

교수님! 그냥 애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꼭 남자친구, 남자친구 해야하나요?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 토요일 오후 티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고독'이라는 드라마를 봤다. 대강 류승범이 연상의 직장상사 이미숙을 열심히 쫓아 다니는 내용이었는데, 드라마 분위기가 좋아 계속 보고있었다. 그런데, 이미숙이 류승범 보러 니 관심이 거북하다고 그랬더니, 류승범이 한참 슬픈 표정을 짓다가, 노을지는 숲을 배경으로 멋지게 대사를 날린다;

i'm a boy. you're a girl... no problem 일줄 알았는데...

뭐야!! 남자랑 여자간의 사랑이면, 사랑은 다 문제없다는 거냐!(여기서 잠깐, 이 문장의 대우를 따져보자면 '문제가 있는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사랑'이란 것인가!) 쳇..

꼭 이런 대사가 아니어도 말이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옹호하는데 있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문제될게 뭐냐?' 는 식의 논리가 등장하면서 남자-여자만 만나면 모든 사랑은 ok가 되어버린다. 사랑은 나이차이도 국경도 초월할 수 있지만, 여자-여자끼리는 안 된다는 걸까?

정말 모르는 소리야..주위에 레즈비언 커플들이, 류승범이랑 이미숙 커플보다 백배

는 더 잘 어울린다!!

중학교 시절.. 도덕선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 심지어 도덕 선생이었던 것이다. 암튼 그 분은 '도덕'을 가르치는 젊은 여선생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와 어렸을 때 같은 반이었다는 모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선생이 흥분에 들떠 그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고 있었는데, 멀쩡감치 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다가 '저 선생 레즈아냐?' 라고 농담을 했다. 그런데 그 선생 귀가 어찌나 밝던지, 신나게 늘어놓던 이야기를 갑자기 멈추더니 표정이 돌변하여 그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방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다. 선생의 분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오랜 추궁 끝에, 남자의 실토를 받아낸 우리의 도덕선생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그 자리에서 수업을 그만두고 나가버렸다. 흠.. 그때 당시에 어리버리 했던 나는 (레즈비언 중심적 사고로) '레즈비언이란 말이 그렇게 열 받나?; 그 말이 어디서 벌겋도 아닌 것에 화를 내내..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다. 그때 선생이고 친구들이고 할 것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바글바글한 호모포비아 기운을 떠올리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다.

친구와 이야기 할 하다가.. 동성애에 관련해서 레포트를 준비하던 친구.. 과제 준비를 위해 꽤 많은 동성애 관련 영화와 글을 찾아 읽고, 꽤 많은 동성애 사이트들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속으로 혼자 신이 나서 친구가 알아봤다는 이런 저런 사이트들과 책들에 대해, 그리고 친구의 소감 등을 캐물었다. 그런데, 이야기 끝에.. 그 녀석이 하는 말은.. '처음엔 궁금하고 좋은 생각으로 소논문 준비를 시작했는데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싫어지는 것 같아' -_-;; '동성애자들도 막 돈 땀에 애인 배신하고, 바람도 피고,, 할련 다하더라.' 허억.. 이 녀석은 레즈비언들의 사랑이 순정의 결정체 인줄 알았던 것인가;; 레즈비언은 바람도 못핀단 말이나! .. 우리도 너네가 하는건 다 한다! -_-;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나가 사먹는 점심.. 음식점 천장에 걸려있는 티비의 음악채널에 친구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밥을 먹으면서 신나게 티비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우리. 한참 여러 개의 뮤직비디오가 지나가다, 하리수가 새 앨범을 가지고 등장한다 -_-; vj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리수를 보며, 한 친구가 말한다. '제 탄진 다 그렇다 치고라도 목소리가 너무 역겹지 않니?' '하리수는 팬들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동아리 남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제 좋아하는 남자엔 하나도 없더라', '개가 남자연예인 누구랑 사귀다 채었다며?' 한참을 히히덕거린다..

너한테 저런게 그렇게 중요하니?? 절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교양 있는 나의 친구들; 하지만, 하리수의 목소리는 어쩔 수없이 역겨운 나의 친구들-_-; 레즈비언 같은 건 신문이나 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녀석들, 같이 밥 먹고 있는 내가 레즈비언 일까란 생각은 꿈에도 안해본 나의 친구들, 심지어 내가 레즈비언임을 알고도 거리낌없이 따라 웃고있는 녀석까지..

변날방에 가는길... 변날방 까지 가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학생문화관 2층까지는 정말 쉼없이 걸어간다. 하지만 그 복도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약간의 긴장이 감돈다. 나의 관심사는,, 저 복도 끄터머리 즈음 동방이 있는 모 동아리에 있는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커밍아웃을 안한 친구들이 불쑥 나타나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이 앞선다. 사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탄성을 피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너무 비굴하잖아 -_-;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혹은 걸음 거리를 재어보며, 그 사람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변날 방문을 활짝 열며 들어가는 일만은 피하고자하는 노력뿐이다 -_-; 실제로 걸음걸이 조절에 실패해 낯선 사람 코앞에서 변날방 문을 열러치면, 문을 열며 방으로 들어서는 내 뒷통수에 그 사람의 당황한 듯한 시선이 아주 꽂아 박히는게 느껴지는 것이.. 그다지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변날방에서.. 어찌나 다들 변날방에 관심이 많은지.. 방에 앉아 있다면 정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 방문 밖을 지나면서 큰 소리로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를 읽으며 복도가 떠나가게 웃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하는 덴지 너무 너무 궁금하다며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방 안 까지 쩌렁쩌렁 울리게 말한 후에 방문을 때끔 열어보고 죽어라 도망을 친 사람들도 있다), 방문 앞에 2개씩이나 썩 붙인 경고문 개 무시하고 별일도 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어 어느어느 동아리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들.. 방에 조용히 전도지를 두고 간 소심 기독교인도 있었다들었다. -_-;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화의 레즈비언들이 변날에 찾아오기를 망설이는지 아시나요?

한때 잠시 다녔던 동네 모 스포츠센터.... 내가 가는 시간은 주로 이른 시간대여서, 탈의실에는 엄마와 함께 학교를 마치고 수영하러온 꼬그만 동네 꼬마 여자 애들이 많았다. (물론 샤워실도 있고 하니 웃도 다 벗고 그런다;) 하도 녀석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내용이 귀여워서 가끔 녀석들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곤 했다. 흠..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마아안악에라도 여기서 아웃팅 당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스포츠 센터 샤워실을 저 꼬마들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 흠.. 학부모들이, 나를 자기 애들을 잡아먹는 변태라도 되는 듯이, 서명운동 같은 거 해서 날 쫓아내지는 않을까?? ;;;; 이런 생각들.. 사실 웃긴 생각이다. 한참 이런 종류의 아웃팅 시나리오들을 떠올려보다가도, 금세 이런 나의 피해망상을 스스로 비웃고 만다. 그치만 이런 잡생각을 종종 떠올리는 것은, 아주 농담처럼 흘려버리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는.. 어쩌면 누군가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일이 될 것이니.. 그런 일이 내가 사는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니..

by mobius



동성애자 죽이기에 가담하고 있는 당신께

-- 아웃팅(outing) --

혹시 아웃팅(Out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커밍아웃(Coming Out)은 들어보셨나요?

커밍아웃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아웃팅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것을 말하죠.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상황은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웃팅은 범죄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며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동성애자임이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야 동성애자 스스로 밝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재 동성애자 같아'라고 쉽게 떠드는

당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론,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동성애자'가 받는 차별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선택인 경우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는 모두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커밍아웃 이후 감당해야 할 불이익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과정을 거친 선택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처 방안도 마련해 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커밍아웃을 후회합니다.

당신은 혹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By 시로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 어쨌든, 동성애자들은 숨어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지? ’

‘ 오히려 다들 당당하게 드러내면, 사회의 시선도 바뀌지 않을까? ’

라고요.. ?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웃팅’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인물!! ‘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 라고 다시 반문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대역에서 내려 채플 시간에 늦지 않도록 뿔뿔 대며 강당까지 뛰어가기도 했고, 공강 시간에는 친구들과 이화사랑에 앉아있기도 했구요.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시간에 과외를 했고, 남은 시간에는 사귀는 사람도 만나곤 했어요. 이런 내게 한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사귀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정말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내가 틈틈히 과외를 하고 알바를 하는 이유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몇 년 간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에는 결혼할 때까지는 데리고 살아야지..하기 마련이니깐요.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직업을 갖게 되면, 나하나 먹고 살 능력은 있을테고, 그러면 굳이 부모님도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우연히 내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재 변날이지? 그거 하더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별 악의도 없이 친구들에게 얘기했지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섞여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같은 동네에서 나왔고, 다니던 학교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은

우리 엄마, 아빠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설마 설마 하시던 엄마, 아빠는 나 몰래 내 핸드폰 통화 내역을 훑아보셨답니다. 어느 날, 과 친구들과 늦게 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는 조용히 나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는 울었고, 아빠는 한숨만 꺾고 내쉬고 계셨습니다. 그 날 새벽까지 그렇게 마주 앉아있었습니다.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기정 사실이었으니깐요. 부모님도 나도, 마치 먼저 말을 꺼내면 큰일이라도 날듯이 그렇게 앉아만 있었답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께만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날부터 나는 엄중한 감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컴퓨터도 그 무엇도 불가.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멋지게 살았던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학교만 졸업해 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고,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저기 뽀빠는 남자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랄까요?

BY 휘인

'변태'에 관한 단상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

내가 다니는 학교 곳곳에, 내가 들락거리는 학생 문화관219호에서 이 문구는 하늘을 날 듯이 펼쳐진다.

나는 왜 변태소녀인가??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진단 규범집이라 할 수 있는 DSM-IV에 따르면 성도착증, 즉 변태성욕자란

1) 무생명체

2)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파트너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치욕감을 안겨주는 행위

3) 어린이나 기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반복해서 강한 성충동이 나 성적 환상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 가슴을 그토록 뒤흔들던 사람이 숨도 안 쉬는 돌멩이였던가?:::: 같은 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1)2)3)번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변태같은 성욕의 이상자로 여겨진다.

이 이유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이성에게서는 성욕의 만족을 얻지 못하며 동성에게서 비로소 만족을 얻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바보들에겐 내가 소시적 학습하던 [어린이 매일 한자]를 권해주고 싶다. 동성'愛'자는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다. 못 변태들이 즐겨보는 이름 모를 비디오에 나오는 섹스에 미친 사람들, 혹은 야들야들한 소년을 좋아하는 수업 덩수룩한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다. 愛라는 글자를 몸뚱이의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당신, 혹시 변태 아니신가?

실제로 호주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를 정신병 취급하고 동성애자들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정신병자들로부터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에 동성애자의 권익 보호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변태소녀! 내가 하늘을 난 적이 있단가?

천만에. 바보와 변태들이 난무하는 세상엔 나에게 마음껏 날 하늘조차 없다.

BY 루키페크

#2. we are the hetero phobia

청소년 보호법 개정과 동성애자 윤씨의 죽음

2002년 9월

가난한 끼리끼리 사무실에는 부팅하기 위한 시간이 100만 시간 걸리는 컴퓨터가 있다. 간사는 인터넷 업무가 대부분인 단체 업무를 하기 위해 100만 시간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것저것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 시작 10분 후 컴퓨터는 다운됐다.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불쌍한 간사는 사무실 근처 피씨방을 찾았다. 컴 앞에 앉은 간사 www.kirikiri.org(끼리끼리 홈페이지)를 입력했다. 이게 웬 일인가! 우리 홈페이지가 '유해하여 차단되었다고 나왔다.

화가 난 간사 돌아와 활동가 회의 자리에서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끼리끼리 활동가 전원 분개.

2002년 10월.

분개한 활동가 중 1인인 아자님께서 피씨방의 증거물을 캡처하여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더러 '유해' 하다니...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유해한 것'으로 취급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99년 6월 30일]의 2항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 기준 '다'항이 존재하기 때문. 내용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유해하다는 내용.

동물과의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행위

혼음=행위

근친상간=행위

가학 피학성 음란증=행위

동성애=감정

'변태'의 규정은 누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사회 통념'이라는 건 누구 기준으로 설정된 개념인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왜 행위가 아닌 감정의 뜻을 담은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동성간의 '뽀뽀' 혹은 '동성간의 성폭력'도 아니고 말이다.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 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 '다'항은 동성애자 인권 차별 조항임을 밝히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다. 우리의 '작은 승리'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국민일보에서 지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성애란...두뇌 구조이상 유전인자가 요인'

'동성애 사이트 접속 허용, 잘못된 환상 심어' 강지원 변호사)

'동성애란...두뇌 구조이상 유전인자가 요인')

'동성애 사이트 접속 허용, 잘못된 환상 심어' 강지원 변호사)

'인권위, 동성애단체 지원 논란'

역시 보수 기독교 신문은 우리의 성과를 멋지게 깃발아 주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술 더 떴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가며 "소수자의 인권만 인권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자의 인권을 보장해라"라는 무식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다.

4월 2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활동가 윤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씨는 여섯 장의 유서를 남긴 채 떠났는데, 유서 내용에는 동성애자로

서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편견과 폭력에 대한 분노와 편견과 폭력을 부채질하는 보수 종교계와 언론사의 횡포에 죽음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씨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자 우리, 동성애자들의 죽음이다.

나, 우리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법 아니어도 충분히 괴롭다. 우리는 웃기지도 않게, 당당하게 이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당신들 덕에 매일매일이 하루살이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나, 우리 동성애자들은, 별 날 것도 없는 우리 동성애자들, 죄 지은 것 없이 죄인 취급 당하며 사는 우리 동성애자들은 부모 눈치 보라~ 친구 눈치 보라~ 선생 눈치 보라~ 직장 동료 눈치 보라~ 이웃 눈치 보라~ 당신들 원하는 대로 숨죽여 지내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 뜻대로 죽어주기 위해 스스로 손목에 칼을 대고, 목을 메 오며 살고 있다. 우리는 이성애자 남성으로부터 질 질 끌려 다니며 강간을 당해도 아웃팅 협박 한 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생사를 오가야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우리는 수천만원을 빼앗겨도, 집단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유행' 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유해' 하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의 언니이자, 동생이자,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이웃이다.
이 평범한 사실을 눈감고 부정하는 당신들, '이성애자' 라고 착각하고 사는 당신들, 세상에는 '이성애자만 존재할 것이라' 믿는 당신들은 결국 열 아홉 살의 청소년을 죽이고 말았다.
부족한가?
몇 명의 동성애자들이 더 죽어나가기를 바라는가?

이 사회에 진정 '유해한' 관념들/습관들/신념들은 당신들, 이성애자로부터 나왔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였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감사 박동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수평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적소수집단을 억압해온 이성애 제도에 대항하는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끼리끼리는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하의 여성에게 강요되는 유무형의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특히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가해지는 각종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적인 이성애 속에서 소수이고 달혀 있는 레즈비언 사회를 열려있는 건강한 문화풍토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상담사업(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교육사업('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회원사업(신입회원 세미나, 정기모임), 연대사업(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동성애자연합,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남성이 주도하는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모든 여성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힘차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사무 및 상담전화 : (02)703-3542,
FAX : (02)703-3543
E-MAIL : kiri9411@chollian.net
Homepage : www.kirikiri.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 016-01-0427-639 (예금주:끼리끼리)
조흥은행 : 333-04-691038 (예금주:끼리끼리)
우리은행 : 784-036387-02-101 (예금주:끼리끼리)

한 동성애자의 죽음

4월 26일: 한 동성애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살이라고 한다.

4월 27일: 죽은 사람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회원이라고 한다.

4월 28일: 죽은 사람이 이제 겨우 19살이라고 한다. 충격이다. 게다가 동인권 사무실에서 죽었다고 한다.

4월 29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청소년보호위에서 내일 여성센터와 함께 주관했다. 내일여성센터는 고작 40여개의 청소년 동성애자 관련 상담사례를 들고 나와서 발표했다. 소장어린 사람은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것을 우려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했다. 동인권 대표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토론회를 진행할 수가 있냐?'라며 토론 내용에 항의했다.

4월 30일: 죽은 사람이 쓴 유서와 내용을 전해들었다. '자신이 모은 30여 만원의 돈을 단체에 기부하겠다.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들어놓은 적금도 기부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달 단체에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 6장의 유서 한 장 한 장마다 뼈속이 굵을 쓰고 지정까지 찍었다고 한다. 우발적인 죽음에 아니다. 가슴이 저린 것도 아닌 것이 이상했다.

5월 1일: 왜 죽었을까하고 생각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을텐데 하고 생각했다.

5월 2일: '전태일은 열사라고 생각하니?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열사야. 똑같이 훌륭한 거지. 동성애자가 억압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죽은 건데, 똑같이 열사 대접 받아야 하는 거지.'라는 말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한 순간, 죽음을 선택한 그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한 내가 현심하게 느껴졌다.

5월 6일: 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오늘은 주모의 밤 행사가 있는 날이다. 주모의 밤: 옥우당이 그가 죽기던 6가지 '녹차, 술, 담배, 파운데이션, 수면제, 목주' 또다. 가슴이 저린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해졌다. '파운데이션'과 '수면제'와 '목주'라니..

누군가 주모사를 올린다.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누구보다 살고 싶었을 겁니다.'
누군가 얘기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뜻밖의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깨어는 거뻐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요? 정말이지..어쨌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평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남긴 유서이다.

[유서가 남긴 유서 중 일부]

저의 공책을 잔직해 주세요. 후배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세가지 소원은 동성애자 해방, 시조부종, 가사 부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나라가 살고, 이 세상이 좋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Y신부님 그 좋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 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한국 동성애자들에게 남기는 말. 언젠가는 언젠가는 좋은 날 올거예요. 난 이승에서 사는게 싫어서 이렇게 떠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보람되게 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죽는걸 비난할 사람이 있을거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더러운 호모섹시 그걸 잘 죽었다, 당신들, 날 비난하기 전에 이 사회를 먼저 비난하십시오.

아, 불가불해요. 죽은 귀엔 거지침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요. '글00는 동성애자다' 라고요...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내 한 목숨 죽여서 동성애자 사이트 유해해제에서 삭제되고 '소름과 고모라' 등등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대답을 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나 죽는게 아깝지 않다고 봐요. 불지각한 편견과 이 사회가 한 사람을 아니 수많은 성적소수자를 남겨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반성적적이고 반인륜적인지...

우리더러 죄인이라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나 먼저 회개하고, 이웃 사랑 실천도 해야 할거예요..... 4월 24일 목

출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평소 시조를 즐겨 짓던 그가 남긴 시조이다.

<성적 소수자>

태초에 인간이란 존재는 쌍으로 붙어있었다. 머리 둘, 팔은 넷, 다리도 넷.

거만한 인간에게 분노한 제우스는 '우르르 쿵! 번개를 내리쳐서 쌍으로 붙은 인간은 '뚝!' 떨어져나가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이 되었지.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됐어. 서로 떨어지게 된 인간은 남은 반쪽을 찾아 이리저리 남녀가 만나게 됐고 어떨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게 됐지. 그게 바로 우리들. 언제나 그들처럼 존재해 온 우리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들은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들은 분노하고. 기가막혀 기가막혀. 나머지 반쪽을 찾겠다는데 뭐가 그리 이상해. 우리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너희들과 약간 다를 뿐이지. 정 우리들이 억겁다면 제우스에게 따져. 오랜 세월 박해받아 온 우리들, 이제는 희망을 찾아 무지개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성적소수자. 제우스의 번개로 내 반쪽 찾아다니는 아름다운 방랑자.

-2003. 4. 9. 육우당

By 시로

우리에게 언론이 있나?

-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매체들의 시선

조이여울(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http://www.ildaro.com>

어느 날 아침 인터넷으로 기사를 뒤적이던 나는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어 올라 짙은 글을 끄적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 일간지에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다.

에이즈와 동성연애 확산
해외 무슨 스타, 동성연애 커플과 싸움
동성연애자 문제 다뤄
L양, 동성연애 즐겨
동성연애의 경험이 있는 누구

...
심지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기사를 실을 때조차
'동성연애'에 대한 인권보호..라고 쓴다.

기가 막히고 열받는다.
'동성연애'라는 표기가 인권침해라고,
써서는 안될 용어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문제제기를 했다.
내 기억엔 적어도 90년대 초중반부터였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전환하던 때를 기억하는가.
일제시대 용어다. 의미가 별로 안 좋다. 등등의 이유였지.
사람들의 입에는 그 후로도 수개월, 혹은 수년간
여전히 '국민학교'가 오르내렸지만
적어도 언론에서 '국민학교' 표기는 '즉각' 사라졌다.

왜냐,
언론이니까 당연하지!

지금은 21세기다.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한국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역사도 10년을 향해가는
시점이란 말이다.

그러니 진정 놀랍지 않은가?
아직도 언론이 '동성연애' 운운한다는 것이.

그들의 무식함에,
그들의 무심함에,
그들의 폭력성에

하루하루 열이 받는다.

이제 보니 진정 새삼스럽다. 우리언론이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행태들을 주욱 나열
해놓고 보면 '동성연애' 표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언론이 어떤 '용
어'를 채택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용어'는 가치관을 담
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매체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부터 잘못
돼있다면 그 매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성연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는 동성애자가 연애(구체적으로는 성행위)하지 않는 상태를 상
상하기 어렵듯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동성연애' '호모' '변태' 따위의 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언론은 성소수자들의 소리가 무섭지 않다.
성소수자들은 주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수'거니와 언론에 항의하며 집회를
벌이지도 못하는 존재 아닌가. 성소수자들이 무슨 재력이 있을 것이며 무슨 지식
이 있을 것이며 또 무슨 로비를 할 것인가. 아니, 성소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태'
아닌가. 언론이 변태들의 소리까지 귀 기울일 수야 있겠는가.

그리하여 우리 언론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말이나' 마구
지껄인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게이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한다, 여자 둘이 살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레즈비언이었다, 레즈비언은 원래 질투
가 심하다, 동성애는 음행의 죄악이다, 동성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아웃팅으로 재미보기

연예인 홍석천씨는 예전부터 커밍아웃할 준비를 해왔지만(모든 성소수자들의 꿈이
아니던가) 그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언론이 그를 아웃팅시켰기 때문이다. 홍
석천 '나 호모다'라는 기가 막힌 제목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우리언론은 성소수자들을 괴롭히는데 혈안이 돼
있다. 성소수자들은 '괴상할'뿐만 아니라 '선정적'인(음란하고 퇴폐적이거나) 구석이
있으니 달콤한 먹이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수자들을 찾아다닌다.
인터뷰 해주세요, 얼굴 한 번 보여줘, 너 호모지? 재 레즈비언이래!

굿태이는 여자프로농구 용병선수들을 '레즈비언이 상륙했다!'며 아웃팅시켰고 타블
로이드판 매체들은 연일 '레즈바 잠입기'라는 소설을 써댄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을 다루고 싶었다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마저도 청소년들을 아웃팅시켜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

동성애 혐오 조장하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으로 인도하는 교회 차원의
치유와 선도가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물 가져와 성문화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
다. 한 마디로 음란성과 선정성, 변태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
한 청소년들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음란의 바다'에 내모는
꼴〉 〈특정 소수의 성적취향에 아이들이 접할 기회를 가진다면 심
한 정신적 충격으로 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 차별조항'을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조치를 하자 미처 날뛰는 언론이 있으니 다들 아시겠지
만 보수기독언론인 국민일보다.

물론 대부분 언론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자의건, 타의건 조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그것도 '인권'관련)의 결정에 대해 거품을 물고 항의를 할 만큼 성소수자들을 미워하는 언론이 있을 줄이야... 아마도 엄청난 소신을 가진 언론인 게지.

국민일보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아닌데다가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데다가 죄인인 데다가 음란의 바다에 빠져있다. 아, 전염성도 강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며 반드시 치유와 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존재다. 거의 지구를 떠나야하는 수준이군.

언론의 역할을 묻자

언론의 호모포비아가 너무 극심하다보니 우린 어느새 그런 방식에 길들여졌다. 뉴스를 보다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나와도 그게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호모포비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우리,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자. 언론의 역할은 가려진 것을 밝히는 것이지, 가려진 것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잘못이 있으면 캐내고 정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잘못을 정당화시키거나 스스로 잘못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당사자의 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기에, 우리에게 '언론'이란 게 있긴 한가?

레즈비언 vs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은 두 부류로 나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즈비언들'.

인터넷 대화방에서 있었던 두 레즈비언간의 대화 내용이다.

A: 성향이 뭐예요?

B: 네?

A: 부치예요? 아님 팸이예요?

B: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걸 왜 나누요?

A:.....

B: 그렇게 나누는 거,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남자, 여자로 나누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것 역시 이성애적 권력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라고요. 아니겠어요?

A:.....

아, 너무나 똑똑한 우리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B양이여!!
대화방에서 별 생각 없이 사람이나 만나볼까 하다가 줄지에 무식한 년 취급당하고 혼게까지 듣게 되는 '레즈비언' A양.

여기서 A양은 레즈비언이지만, '여성으로서 자각이 없고 단순히 성적 욕구에 충실한 인물'로 낙인찍힌다. 물론 똑똑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B양에 의해서. (하지만, 과연 A양을 '여성으로서 자각이 없는', 그래서 무식한 '레즈비언'일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아마도 똑똑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B양은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이 싫었나 보다.

시선→레즈비언이란 남성으로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남성화되려고 하며 실제로 여성과 성적 경험이 있었거나 현재 있고 애인이 있는 혹은 파트너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B'양은 이러한 거부의 몸짓을 통해, 똑똑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

서 과연 레즈비언과 여성의 인권향상에 기여한 것일까?

사실, 우리의 똑똑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B양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위의 문제를 판단함에 앞서 뉴욕에 <레즈비언 역사 자료관>(Lesbian History Archives)을 창립한 우리 레즈비언 왕언니 조안 네슬(Joan Nestle)의 얘기를 들어보자.

"1950년대의 레즈비언들은 70년대에 와서 한 가지 실수를 했다. 즉, 우리들(레즈비언 민중)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를 하찮게 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실제로, 70년대 미국의 백인 중산층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자유주의적 레즈비언 단체 <빌리티스의 딸들>(Daughters of Bilitis: DOB)은 부치-팸을 이성애적 부부관계와 같은 패턴이라고 간주하여 아예 그들의 존재를 불식하려 했다. 그들은 부치-팸을 <게이바 출입자 혹은 노동자계층 여자들>과 동일시하고 배척했는데, 그러한 계급적 편견은 온근히 주류 백인 중산층 페미니스트들을 의식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신분상승욕구로 해석된다. 그 당시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남성과 레즈비언이 다를 바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노승희, 1999)

이렇게 주류 페미니스트들의 눈치를 보면서 활동했던 70년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을 과연 '레즈비언'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레즈비언'적인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애봇(Abbot)과 러브(Love)에 의해 제기된 '레즈비언'과 '정치적 레즈비언' 논쟁을 통해 일말의 단서를 짚어보자.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적 레즈비언은 페미니스트 이론의 결과로 레즈비언이 된 레즈비언을 의미한다. 정치적 레즈비언은 분리주의적,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레즈비언니즘을 지지하며 자신의 조건을 분석한다고 본다.

즉,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레즈비언이 된 사람들은 레즈비언 경험을 자신의 정치학에 대한 진보의 상징으로 간주함으로써 레즈비언보다 페미니스트에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레즈비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간주하거나 남성과 명백한 성적, 정서적 연대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레즈비언이 당면하는 억압과 조건을 탈현실화시킨다. 즉, 정치적 레즈비언들은 자기 성취와 독립과 같은 레즈비언이 되는 기쁨에만 만족할 뿐 레즈비언이 되는 고통을 자신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레즈비언이 됨'에 대한 일련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김지혜, 1997)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레즈비언은 '가부장의 권좌를 철거시키고 곧 여성억압의 역사에 종말을 고할 강력한 구원의 비전'으로서만 존재했을 뿐이다. (레즈비언이 무슨 공상과학만화에 등장하는 영웅이야?) 당연히게도, 이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실제 레즈비언의 삶 따위는 전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으며 고려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레즈비언이 필요했을 뿐이었으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의 삶을 오히려 그들이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배척했다.

70년대 레즈비언들은 그렇게 페미니스트가 되길 강요당하거나, 배척당했으며 또 다시 소수자의 영역 속 '타자'란 이름으로 묻혀졌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똑똑한 레즈비언 'B'양을 비롯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얘기를 해보자. 70년대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건만, 우리의 똑똑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어쩌나 생존력이 강한지, 아직도 그 맥을 이어, 이 땅의 '레즈비언'들을 알아내고 있으니... 오호~! 통재라!!

때는 2001년 가을, 한국여성학회라는 단체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 때 한 용감한 여성학자가 레즈비언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강/숙/자, 논문의 제목은 '레즈비언 여성주의의 비판적 검토'.

다들 알겠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레즈비언'과 관련된 이론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마당이었기에 몇몇 레즈비언들은 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논문의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줄이야! 적어도 '여성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발표되는 논문이라, 삼류 일간지에 실리는 기사보다는 수준이 높을 것이라 기대했던 몇몇 레즈비언들은 무참히 뒤통수를 난자 당하고야 말았으니...쫄쫄...

그 논문 내용에 관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이, 레즈비언을 '참 레즈비언'과 '정치적 레즈비언'으로 나누고 여성학의 방패 뒤에 살짝 숨은 '무임승차자'라고 한 것이나, 부치-팸을 '이성애의 역할극'으로 언급한 부분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레즈비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레즈비언 이론과 인터뷰의 부분적 인용만으로 레즈비언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호모포비아'의 무리들을 대변한다는 생각까지 들도록 했다. 그녀는 논문의 들어가는 말에서 밝혔듯이, '레즈비언 여성이론이 한국 보편의 여성이론이 아님을 심도있게 논증하기 위해' 레즈비언 이론을 끌어다 붙이고, 결과적으로 한국 보편의 레즈비언의 삶을 완벽하게 깔아뭉개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당시, 용감 무쌍한 강숙자와 한국 여성학회에 대해 이 땅의 레즈비언들은 분노를 표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용감무쌍한 그녀들(강숙자와 한국여성학회)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던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레즈비언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다. 강숙자가 여성학자이건 말건, 논문이 여성학회에서 발표되건 말건, 이 모두를 무시하고서라도 어떤 이론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건 말건, 이 사건은 '레즈비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아마도 '페미니스트'들이 나서기에는 너무 쑥스러웠나 보다. 고민해야 할 '여성주의적' 사안들이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레즈비언' 그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그렇다면, 그 뒤에 벌어진 '언니네'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사이트인 '언니네'에서 화제가 됐던 논쟁을 다들 기억하시는지? 사건의 발단은 한 레즈비언 운동가가 올린 글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레즈비언인 그녀 스스로가 어처구니 없는 '강숙자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존재에 기반하지 않는 이론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적은 글이었다. 그 글에 대해 어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사람이 탄지를 걸었다. 아마도, '글 내용이나 맥락은 이해가 가지만, 표현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후, 3개월이 넘게 지속된 논쟁 과정에서, 처음의 탄지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집단은 격렬한 분노의 태도로 일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글에 대한 맥락이나 필자의 의도는 완전히 무시한 채, 그네들이 맘에 안드는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장장 석 달이 넘는 기간동안 '투쟁'했다. 놀랍지 않은가? 왜, 그네들은 '레즈비언'더러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일개 레즈비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글 하나에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일까?

아마도, 그네들은 자신들이 '레즈비언'이자 '페미니스트'로써, 일개 레즈비언이 쓴 글의 '반 페미니스트'적 표현에 대해 충분히 충고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나 보다. 왜냐하면 같은 레즈비언끼리는 서로 웬만큼 이해하는 처지이니, '더 많이 알고 있는 내가 더 모르는 너에게 충고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올바른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그네들은 '레즈비언'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 외에는 어떤 면에서도 '레즈비언'으로써 행동하지 않았다. 그네들이 최초의 필자에 대해 '커밍아웃하지 않았음'을 다른 레즈비언을 기만한 것'으로 공격했던 것이나, '공정한 해결'을 이유로 다른 레즈비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담회 개최'를 제안한 것이나, 그 과

정 전반에서 보여준 태도 중 어떤 것으로 그들을 '레즈비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판인가

최초의 탄지녀가 맨 처음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점철되었던 일련의 사건은 발단이 됐던 당사자가 (시일이 아주 오래 지나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표면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ism은 존재 위에 기반할때 참다운 -ism이 될 수 있다.

-ism은 우리의 존재를 완벽하게 담지할 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설계할 때 그 의미를 한층 깊게할 수 있다.

존재에 기반하지 않는 -ism 은 폭력이다.

그 괴물은 우리를 곧잘 잊어버린다.

그 괴물은 우리를 곧잘 따돌려 버린다.

그 괴물은 우리를 곧잘 놀림감으로 전락시킨다.

레즈비언이즘 안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수입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박동. "우리엔 레즈비언이즘이 없었다"중에서

이 글은 2002 여성연대 한판 부분 주제 발제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BY시르

레즈비언

- 그 변태들의 메이데이를 위하여

하나, 레즈비언은 메이데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즈비언이란 녀들은 자기들끼리 붙어먹는 막 되먹은 변태들일 뿐이니까. 도대체 이 신성한 혁명의 날에 그녀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메이데이는 말 그대로 노동절이다. 매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 시위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힘을 과시하고 노동자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다. 이들 노동자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보편적 인간 해방의 이상을 실천하는 주역으로서, 혁명의 투사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성애자 남성의 모델로써 그려진다.(당신은 저 유명한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가 게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어차피 동지인데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뭐 어떻다는 거야?'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중요한 건 노동해방이므로 계급투쟁이 승리한다면 모든 억압과 모순이 단번에 사라지는 인간해방이 실현되는 것인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단순히 경제적, 물질 토대의 구분으로 이루어진 계급투쟁으로 모든 문제를 환원시킨다면, 결국 선택되지 못하고 배제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침묵의 영역 속에 존재했던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여성 노동운동이 진보진영 내 가부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젠더의 차이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제시한 것은 모든 모순의 계급 환원적인 발상이 또다시 다른 성격의 억압을 생산해내는 구조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 같은 맥락에서 레즈비언은 또 다른 균열을 통해 억압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하는 또 다른 주체로써 존재한다.

둘, 레즈비언-여성과의 연대

레즈비언은 강요된 이성애적 질서를 거부하고,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긍정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는 여성으로써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위치 지워지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장 극명한 투쟁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권력은 그 실체를 감추고 교묘하게 권력에 유리한 장치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를 가부장적 이성애주의라 명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성애주의가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즈비언

의 투쟁-섹슈얼리티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것에 기반한 정치 세력화-은 결코 레즈비언만의 투쟁이 될 수 없으며, 궁극적 여성해방을 꿈꾸는 모든 여성주의자들과의 연대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레즈비언의 여성주의 진영에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여성운동진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¹⁾ 이성애주의에 대한 저항은 레즈비언 영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즈비언은 그 특수한 정치적 위치와 투쟁 사안들의 고유 영역화를 실현하는 한 편, 모순의 정점에 놓여있는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과의 연대 속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변태들의 신나는 세상을 위하여,
레즈비언, 메이데일로 간다.

이 글은 변태들이 '2002 메이데이 저/' 에 함께 했을 당시 자료집에 실었던 글이다. 지금 읽어보면 무슨 소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무척이나 쓸데없고 고민했던 것 같다. 3년간 메이데이 집회에 참여할 동안, 단 한번도 '레즈비언' 으로서 참가한 적이 없었으니 고민할 만도 했다. (심지어 '여성' 으로서 참가한 적도 없다) 처음 시작한 고민이었지만 그 고민을 하는 동안 매우 기쁘고 정말 가슴이 벅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경험을 잠시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가 '메이데이' 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단계조차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의 '노동권' 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노동 현실과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성애자임이 드러나서 해고를 당해도,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By 시로

그놈의 뜻을 잘라라

1) 이전의 여성노동운동 진영에서 언급되던 "여성 노동자"의 모습은 가사노동과 임금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성애적 가족 구성원으로써의 모습을 전제한다. 이는 이성애자 여성을 다시 '일반적' 여성 노동자로 내세움으로써 그렇지 않은 성적 소수자 여성들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화에는 레즈비언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여중, 여고를 다니던 시절, 한번쯤 멋있는 선배를 동경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어떤 아이가 말한다.

---“난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자식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엄마가 말한다.

---“그러니? 엄마도 여고 시절에 어떤 선배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아빠를 만나 이렇게 널 낳고 잘 살게 된 거지... 니가 아직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 봐서 그런거야,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미팅도 하고 그래보렴. 그럼 달라질걸..”

동성애는 여자들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대우인 “동성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여자들끼리 붙어있지 않으면 된다고 성립해야 하나? 그럼 이 땅의 수많은 기혼(남성과 결혼 후에야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레즈비언들의 존재는 뭐야?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레즈비언이 남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종의 “이성애적 변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한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페니스가 있는 (완전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여성은 페니스가 없는 결여된 인간, 뭔가가 부족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럼 도대체 페니스가 뭐길래....?

“몸으로부터 길게 빠져나온 해면체로 이루어진 살덩이”에 불과한 이 불품없는 물건은 우리의 상상보다 거대하게 우리를 움아매고 있다. 나는 오로지 남성의 페니스와 그것이 결정하는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의미를 지니고, 나의 질과 나의 자궁은 페니스가 결여된 부분으로 나의 몸을 지배하고 나의 욕망을 거세한다.

페니스를 갈구하지 않는 나의 욕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배제되어왔고 부정당해 왔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언어인) 남성들의 언어로 나를

설명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페니스가 없는 욕망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것 역시 남성이 투영된, 혹은 남성이 대체된 존재로서 우리를 이해할 뿐이었다.

우리는 존재했지만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우리는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각각의 존재가 각각의 언어로 자신을 기쁘게 긍정하기 이것이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2002년 4월,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에 게재했던 자보의 내용입니다.

이 자보는 게재 3일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에게 절거당했습니다.

그 범인은 호모포비아인 당신입니다.

By 시로

#3.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

역상황 시나리오.

역상황 -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하다'

이 글은 결코 '오바'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성애자로 바꾼 것 뿐이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이성애자들, 광분하지 마시길..

아직은 동성애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다..

"내일 A 여대랑 미팅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넌 통 미팅을 안 하더라?"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불편하다. 물론 내가 이성애자라는 걸 알 리가 없을테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대와의 미팅 얘기를 나에게 하는 거겠지만 마치 당연한 듯이 주위에 이성애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무신경함이 조금은 두렵다.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다 이상한 듯 나를 보는 친구의 눈에 그러마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는 이성애자다. 나는 여성 이성애자다. 내가 이성애자라고 하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와 함께 밥 먹는 것도 꺼려하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날 외면해버리는 건 아닐까.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남자 친구들은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아닐까. 내가 마치, 남자를 사귀려고 우리 나라에 몇 안 되는 공학 대학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건 아닐까. 팔짱을 끼고 즐겁게 다니던 정말 소중한 내 남자친구들은 날 멀리할지도 모른다.

어제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에게서 고백을 받았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지만, 내가 이성애자라는 걸 알면 그녀는 나에게 덤벼들지도 모른다. 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보기에, 포르노에 나오는 이성애자 여자들은 모두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상대에게 매달리는 섹스에 미친 여자들이니까. 하긴, 자기들이 언제 어디서 이성애자를 접해 봤겠어. 당장 이성애자인 내 주위에만 해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딸이, 자기 누나가, 자기 선배가, 자기 후배가 이성애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을텐데.

"어우, 저 미친년 나온다. 난 한때 내가 재를 좋아했었다는 게 부끄럽다니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밥알이 목에 걸린다. TV에는 이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여자 연예인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냐? 난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떠넘기는 내 친구. 그래 이해하지마. 누가 이해해달래? 죽을때까지, 넌 그냥 같은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아. 니 눈앞에 있는 친구가 남자를 좋아하던, 법적으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남자랑 평생을 살던, 그냥 모르고 살아버려.

"야 요즘은 그런 말하면 안돼. 은근히 이성애자 많잖아. 거기다 우리 학교 공학이니까 여자대학이나 남자대학에 비해 많을 걸? 남자랑 여자랑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냐. 안 그래?"

이해심 많은 척, 친구가 나를 보며 동의를 구해온다. 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나라고 같은 여자를 좋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 옆집 언니를 좋아했었고, 중학교 댄 영어를 가르치던 여 선생님을 좋아했으며, 고등학교 다닐 땐 같은 반이었던 여자에랑 사귀는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었다. 그래, 문제는 사랑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전화를 붙잡고 통화하고 싶고, 누구와 키스하고 싶고 하는 가의 문제인데. 분명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이성애자들이 감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조차 못하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에서, 하필 나는 남자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남

자이다. 게다가 그 남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 같은 이성애자라면 좀 덜 힘들텐데, 그는 정상적인 동성애자이다. 비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있다.

"저거 칼로 확 찢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뉘둬. 뭐 찢기까지 하나? 너무 그러지 마."

"세상 말세야 정말. 저런게 별건 대낮에 버젓이 걸려있고."

헤테로포비아가 넘쳐나는 친구는, 우리 학교의 이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변태선녀, 나뭇꾼의 옷을 훔치다.'의 피씨와 자보를 보며 한마디 한다. 나도 '변태선녀, 나뭇꾼의 옷을 훔치다.'의 회원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털어놓고, 마음놓고 울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다. 저 자보는 내가 썼고, 옆에 걸려있는 피씨는 '변태선녀, 나뭇꾼의 옷을 훔치다.'의 회원인 남자가 썼다. 별건 대낮에, 이성애자의 인권을 부르짖는 피씨가 걸려 있으니 세상이 말세이긴 하지. 말세다. 말세. 이왕 말세인 김에, 동성애자들만 몇몇한 세상은 망해버리고 다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대학내의 이성애자 인권운동 모임이 활발히 진행될 만큼 이성애자들의 인권이 얘기되는 세상이 왔으니,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이성애자끼리의 결혼도 인정해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내 존재를 숨기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성애자들이, 조금은 숨쉴 수 있는 세상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딱 한번, 꽤나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내가 이성애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성애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했었다. 제법 나를 이해해주는 듯하던 내 친구는 마지막에 나에게 물었다.

"너 그럼, 남자랑 섹스도 하니?"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애인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

"하는 사람은 있어?"

"당연하지. 연애하면 여자랑 남자도 섹스해. 안하는 커플도 있지만."

"세상에- 진짜? 난 여자랑 남자랑 사귀면 그냥 좋아하는 줄만 알았지, 섹스까지 할 줄은 몰랐지. 어머어머, 그럼 정말 삼입섹스를 한단 말이야? 그 무식하게 생긴 걸...안 아프대? 삼입섹스하면 에이즈 걸릴 위험

도 있지 않냐? 그냥 안전하고 깨끗하게 여자들처럼 하지. 근데 정말 그게 여자들끼리 할때만큼 좋긴 하대?"

이성에 섹스에 잔뜩 혐오감을 담은 친구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성애자들 섹스는 더럽고, 여자들끼리 하는 섹스만 깨끗한가? 내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친구는 머쓱한 듯 고개를 슬쩍 돌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예라도 생기면 어쩌려구.."

나는 그 이후로 절대 누구에게도 커밍아웃하지 않는다. 이성애자의 결혼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내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겨운 곳이다. 호주인가 어딘가에 가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성애자 사이에 낳은 아이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만약 내가 동성애자들이 정해놓은 규범 속의 정상적인 동성애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자를 사귀게 되면 호주에나 가버릴까?

저 멀리서 내가 사랑하는 그가 걸어온다. 그의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아마도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언젠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 이성애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 김꾸님 쓰다

나의 플래시 속에

갑자기 들어온 '흰' 개와 익숙한 장애물에 대한 단상

...그 개는 누구에게나 낯선 이상야릇하고 규정 불가능한 생물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녀석은 다른 '일반' 개 품종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하얀 개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했다. (그 개는 누군가를 물 힘도 없어 보였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는 순한 녀석이었는데 말이다.) 들은 얘기지만 결국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그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개의 입에 강제로 재갈을 물리고 몸을 갈색으로 칠했다고 한다. 개에 대한 소문은 이게 전부였고, 내가 그에 대해 아는 것도 이게 다였다.

...그 개가 나의 플래시 속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커밍아웃이라. 어떤 사람이라 해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존재감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말을 타인에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꺼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한 마디로 부모와 친구와 사회로부터 한 큐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차곡차곡 쌓아온 삶이 모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무형의 위협. 커밍아웃이란 그런 것이다. 삶을 건 아슬아슬한 내기 같은 것. 그 내기의 승패는 언제나 타인이 쥐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승률은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미안해. 나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 '너 변태냐?', '아직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미안하다. 내 딸이 이런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죽어야지' 또는 최악의 반응 '어? 그게 어디서'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놓고는 뒤에 가서 수근수근 '제 조심해. 동성애자래'..... (뭐 이런 말들과 곱지 않은 시선은 다 예상하고 있다.)

옥, 패배. 낙오. 처참한 대못이 퍼억 하고 박히게 될 죽음보다 무시무시한 커밍아웃.

이런 세상이니 '요상한 변태성욕자' 라는 암묵적 수식어가 달린 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솔직히 시인하는 것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내 눈앞에 너무나 사랑 하는 나의 연인이 가슴도 있고, 보지도 있는 여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아~ 그저 혼란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연애하다 다르면 애인도 달래야 하고, 애인 사귀려면 쫄쫄 숨어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 몇 년을 헤매야 하고, 레즈비언 카페에서 애인이랑 술 한 잔 마시려면 돈도 열라 벌어야 되고(레즈비언 술집은 조금 비싸다!), 사람들이 눈치 찰까 항상 긴장상태에, 정체성 검증과 확정도 해야 되고, 이 성폭력 박물관 같은 세상에서 애인과 내 몸 하나 남자들로부터 지키기도 엄청 힘들다. 으스스한 골목 조심(성폭력

때때), 사람 많은 곳 조심(둘이 손잡고 다정하게 다니면 요상아리꼬리 하게 쳐다 본다), 집 조심(부모님한테 뽀록나면 큰일이다). 오~ 갈 곳 없는 인생이여. 이성애 사회야, 이성애자들아. 우린 나가 죽으란 말이나? 이왕 태어난 거 사랑도 좀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고 싶단 말이다. 대답해라.

커밍아웃은 그러하다. 내 삶을 진정한 '나'로써 인정받고 싶다는 아주 특별한 용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세상으로의 말 걸기. '나'의 마음과 '사회'의 마음이라는 거대하고 익숙한 장애물을 넘어보겠다는 배짱. 이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말 저말 꺼내놓는 이유는 이 특별한 용기를 위해서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커밍한 그 동성애자는 당신을 많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아무에게나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멀리하거나, 상처받을 만한 말을 못하고 던져서 상대방의 심장에 대 못을 박지 말아달란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숙지해달라는 말이다. 모두가 크게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 꺼낸 얘기로 돌아가 보자. 내가 얘기한 그 흰 개의 이름은 여성을 동일시하는 여성인 나의 '성 정체성'이다. 그 녀석은 내 속으로 아주 조용히 들어왔고,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물, 그러니깐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이 없었다면 내 플래시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녀석. 나는 소망한다. 녀석이 그저 '평범한' 개 한 마리로 생각되어 질 것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잘 살게 내버려둘 것을. 갈색 개도, 흰 색 개도 함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를. 어떨까? 씩씩하지 않는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니.

나는 가끔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래, 나는 레즈비언이다. 나는 동성애자 해방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한 레즈비언이다. 이 지구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레즈비언이다. 하하

BY 유다

중앙대학교 이반들의 모임 '레인보우 피쉬'

카페주소 <http://cafe9.daum.net/cauqueer>

저는 자랑스러운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의

천진난만발랄소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

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자료집을 읽다가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제 얘기와 변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남 얘기를 듣는 건, 더군다나 이화에 있는 동성애자의 얘기를 듣는 건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은 자신없어요. 그렇게, 어디 얼마나 재미있나 보자 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뽀빠이를 게 있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즐겁게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사실 전 아무 생각없이 변태에 들어왔어요. 인권 운동에 관심이 조금 있긴 했지만 설마 지금 이렇게 변태의 활동가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고등학교때까진 '나는 동성애자야.'라고 정체화라는 걸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히 제가 동성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파란방의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대학에 와서 얼핏, 이화에 레즈비언 인권 운동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전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자료가 걸렸지 뭐예요? 그 놈의 좆을 잘라라! 글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리챌주소를 외워서 프리챌에 있던 변태 커뮤니티에 가입신청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았는데 방에 놀러오라는 거예요. 어딘지 다들 알죠? 학생문화관 219호. 아무것도 모르던 저, 다음 날 방에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나는 동성애자야.'라는 정체성을 그때 내리고 있었다면 아마 선뜻 찾아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우팅이 뭔지도, 이화에서 그 파란 방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문을 열었죠. 운이 좋게도 마침 방에는 제가 봤던 자보를 쓴 언니가 있었고, 저 말고도 같은 학년의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연 순간부터 저는 변태의 활동가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지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씩 보고 듣고 놀고 배우기도 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난 저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제 자신

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동성애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변태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되짚어 볼까요? 자, 기억나시는 분, 제가 왜 변태에 들어왔죠? 자보를 보고서요? 그 자보를 본 이화인이 저밖에 없었나요? 과연 제가 자보를 보지 않았다면 변태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변태에 이끌려 들어간 거겠죠. 무엇에 이끌려서? 간단하지 않나요? 전 저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니까요. 전 여성과 연애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 좋아해주지 않더라구요. 내가 안 예뻐서 그런가? 하지만 전 레즈비언인걸요. 자아, 이유는 충분하죠? 여섯가지 색의 천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 예쁜 파란 방과 교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변태에 들어와서 '동성애자가 된 건' 아니예요. 변태에 들어와서 '동성애자인 나를 발견'한 것 뿐이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레즈비언인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자친구들을 좋아하기만 하며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발견하기야 했겠죠? 설마 변태에 들어와서 레즈비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죽어도 이성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변태에 들어와서 인권 운동을 한다고 동성을 사랑하게 될까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변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동성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요? 뭐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 하늘을 열심히 날고 있는 변태소녀인걸요. 이화 레즈비언 인권 운동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즈비언. 괜찮지 않나요? 변태에 들어온 다음의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전 레즈비언에 대한 선입견과 환상이 있었어요. 어머, 같은 레즈비언끼리 무슨 선입견이나구요? 저라고 왜 선입견이 없었겠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느낀 게 뭐냐구요? 뭐긴 뭐예요. 선입견은 말그대로 선입견이고, 환상도 말그대로 환상이지. 방 밖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확인하고 가슴 졸이며 방 출입을 해야 하는 소심한 우리 변태 식구들은 정말, 만나 봐야 안다니까요.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가요? 어찌나. 레즈비언을 볼 수 있는 특권은 레즈비언에게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제가 변태 활동가 모집 홍보라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그럼 좋아요. 홍보 겸 에세이라고 해두죠. 같이 피씨쓰고, 자보쓰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할 여러분. 파란 방에 놀러오지 그래요? 안 잊어버렸죠? 학생문화관 219호 말이에요. 얘기가 좀 빗나갔나요? 어쩔 수 없죠. 전 작가가 아니라서 글은 잘 못써요.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그럼 뜬금없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지요. 변태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름에 한 번 했고, 겨울 방학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에 했던 분과는 다른 간사분과 함께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는요, 비밀이에요. 엄청 재미있고 또 엄청 공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용은 아까워서 안 가르쳐줄래요. 궁금한 레즈비언들은, 피씨봤죠? 자보봤죠? 방으로 오거나 메일 보내세요. 자아, 지금까지의 얘기는 어땠나요? 재미없었죠? 이런 재미 없는 남의 얘기 듣고 나니까 차라리 자료집의 다른 글을 읽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죠? 이거, 변태에서 처음 나오는 자료집이에요. 무지한 저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료집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오죽했으면 아무 글발없는 제가 에세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꼭 참고 읽으세요. 참,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자료집을 덮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읽고 나니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누군지 짐작이 가니까 친구들에게 '나 이글 쓴 거 누군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할 건가요? 제가 레즈비언인게 소문나면, 전 어쩌면 왕따가 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자료집 읽다 보면 아마 아웃팅에 관한 글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읽어보고, 제가 누구일 것 같다는 얘기 친구들에게 하던지 하세요. 근데 제가 누군지 궁금하긴 하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의 얼굴이 궁금하답니다.

by 김구

난 언제부터 나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했던 것일까?

나는 꽤 어린 시절부터 내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동성애자'라는 개념을 어디선가 주워들기도 전에, 내가 동성 친구를 좋아하고 있음을 더 먼저 깨달아 버리는 바람에, 남들과 다른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지만 정작 '동성애'라는 말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잡다한 정보들을 접한 후에야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늘 생소했고, 나에게 동성애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유독 내 안에 자리잡은 호모 포비아가 심했던 터라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를 드러내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내 안에는 호모포비아가 많다!)

오랜 시간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기를 유보시키며 살고 있던 내가, 나를 레즈비언이라 정체화 하기 시작한 것은 우습게도 일떨결에 변태에 발을 놓고 얼마 안되었을 때 '나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는 이유'를 써오자는 숙제가 떨어지고 난 후다. -_-;; '내가 정말 레즈비언 인건가?' 조차 헛갈렸던 당시에 그 숙제를 놓고선 많은 고민을 했었다. 물론 그때 숙제는 초저점으로 해갔지만, 그 후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내게 있어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를 깨닫는 것과,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정체화 하는 것 사이에는 꽤 멀고 험난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나를 긍정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과정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호모포비아 치료라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아무리 내가 동성애자일지라도 '동성을 좋아하는 순수한 나의 감정' 만으로 내 안의 호모포비아를 치료한다는건 정말 힘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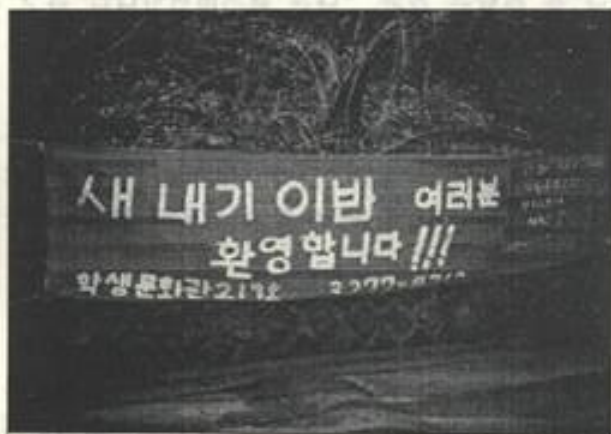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대라는 공간은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는데 있어 매우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변태에서 처음 너무나도 밝고 즐거운 (심지어 푹푹하기까지 한) 레즈비언들 만나면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다들 비극적이고 암울한 인간들이 아님을 알게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내 안에 가득했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들을 지워낼 수

있었다.

처음 '변태의 xx'이란 이름으로 외부 회의에 들어갔을 때.. 너무 엉겁결에 들어간 터라 일반들 사이에 나를 변태로 소개함과 동시에 레즈비언인 나로 서게 되는 것 같아 그 자리가 몹시 불편했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친한 과 친구한테도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마당에 '변태의 xx입니다' 라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덜어주었던 것 같다.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동성애자인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반 친구들을 만나서 스무해 평생 말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글 쓰기 싫다고 징징거리면서 나의 경험을 하나 둘씩 써내려 가는 중에.. 나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여러 레즈비언리즘 이론들을 접하면서.. 혼자서는 드러내기 힘든 '레즈비언인 나'를 '변태'의 이름으로 일반들에게 이야기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나는 작은 힘들을 얻어 나가고 있다.

By mobjus



2003 Korea Queer Festival

무지개 2003 - 움직여!

무지개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지난날 우리의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시기에는 너무 이르러요. 우리에게 아직 바뀌어야 할 것,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어요. 아직은 시기보다는 움직여야 해요. 아직 남아있는 편견과 오해를 향하여 움직여야 해요. 당당히 앞으로 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세요. 즐겁게 떠돌고, 춤추고, 한데 어우러져 웃어 보자구요. 여러분의 움직임으로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세요!

무지개 2003 행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퍼레이드는요, 2003년 6월21일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예요. 종로 2가 일대에서 오후 세시부터 여섯시까지 퍼레이드가 있답니다. 퍼레이드에 앞서 공연도 있구요, 퍼레이드가 진행되면 풍물패 행진, 대형 레인보우 깃발, 레즈비언 커플 웨딩 연출, 게이 커플 웨딩 연출 등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의 퍼레이드를 볼 수 있겠죠? 퍼레이드가 끝나면 가수와 밴드의 축하 공연도 있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연까지의 행사가 끝나면, 장소를 옮겨서 프리파티가 있어요.

프리파티에 오시면, 안주와 술이 무한 제공!!그리고 일라 신나는 공연과 마음껏 놀 수 있는 파티예요. 물론 티켓은 돈주고 사셔야 하지요~퍼레이드부터 프리파티까지. 이것이 진정한 무지개 2003행사의 백미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죠?

▷전시회는요, 2003년 6월 24일부터 7월6일까지 계속되는 행사예요. 영화제는 2003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주 아트 하우스 씨네 큐브 광화문에서 열려요. 토론회는 2003년 7월 5일 오후 네시에 홍국생명빌딩 일주아트하우스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동성애자 파트너쉽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에요.

자아 여기서,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릴게요. 참가형식은 자유로운데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막무가내 참가가 6월 20일까지 신청이구요. 기획공연(요, 공연)을 포함한 이벤트인 망껏 뽀내봐 참가는 5월 31일, 피켓, 가장(분장) 행렬등을 위한 소리쳐봐! 참가는 6월 20일까지 신청하는거예요. 참가신청 하려면 무지개2003 홈페이지에 가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환영이래요. 그럼 문제! 무지개2003 홈페이지 주소는?

정답 나갑니다~ www.kqcf.org

반성폭력 네트워크

여성동성애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자체 내 자정활동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주력하는 것은 보다 수평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성폭력 상담과 유관단체 연계, 법적 대응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가해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여성이반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며 가능한 많은 여성이반 모임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즈비언 공동체 '니아까' 여성이반 커뮤니티 '레즈피플' 동성애 포털사이트 '버디친구닷컴' 이화여대 여성이반 인권모임 '변태소녀 하를 줄인다' 성신여대 이반모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모임 '끼리끼리' 외 개인참가자들)

반성폭력 네트워크 : <http://www.kirikiri.org/network>
반성폭력 네트워크 담당 : queer_adviser@yahoo.co.kr

2003 Korea Queer Festival

<반성폭력 네트워크의 결성의의>

성폭력이 비단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지난 2001년 5월 서울지법은 최초로 성인남성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그리고 여성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범죄이며 그 본질은 '성적욕구'가 아닌 '권력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선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 동성간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동성간에도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꾸준히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대응책이 미비하다. - 우리 법은 남성 성기 중심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성 간 성폭력을 '강간'이나 '준강간' 그리고 '성희롱' 죄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아웃팅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 상담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려 할 때에도 늘 동성애자들은 '아웃팅'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타인으로 인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같은 행위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며 위법임)의 위험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폭력 네트워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여성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에도 반대합니다. 여성동성애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자체 내 자정활동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주력하는 것은 보다 수평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조이토마토 - 이화여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

▶ 사이트 개요 :

이메일 <http://www.joytomato.com>은 2002년 9월 30일에 오픈한 회원수 60여명의 이화계대 여성이반 친목 커뮤니티입니다. 과란토마토(재학생)와 빨간토마토(졸업생)들의 적극적인 바람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토마토 샐러드와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등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혜택 :

다양한 이화 이반 인맥을 제공해드립니다.

①공강시간에 이반 친구와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땀배 태우고 싶으신 분, ②이반 친구와 함께 교양 수업 들어보고 싶으신 분, ③개강파티를 이반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 ④이반 친구, 후배, 선배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 ⑤이반문화행사에 동참할 이반친구가 필요하신 분-죽이토마토에서 다양한 이화이반 선배를 만나보십시오.

▶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은 joytomato@joytomato.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단, 메일 제목이나 본문에 [광고] 혹은 [홍보]가 들어간 메일은 서버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

예) 편날의 문화제 홍보글을 읽고 메일 보냅니다~ -----> 이런 메일은 바로 삭제됩니다 ^^

예) 편날의 문화제에 실린 글을 읽고 메일 보냅니다~ -----> 이런 메일은 바로 전달됩니다 ^^

★ 무니 ★

여자를 사랑할줄 아는 여자들을 위한 작은 모임.무니입니다.

저희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친목도모 모임입니다.

이화 안에서의 바이와,레즈비언,트랜스젠더 분들을 모두 환영하구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시고, 편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어떤것의 목적을 위해서라기 보단, 서로 공통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얘기하면서 이해하는 작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오래 활동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무서운 모임이니까요~

그렇다고 정말 무서운 모임이 아니라(후후) 정팅도 정모도 자주 가지고 있구요.

가질때마다 망가지면서 잘 놀고 있구요.

회원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시니까 망설임없이 노크해 주세요.

오시면 최강 만담자매들이 환영해 드릴겁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따스한 친구가 되고싶어요.

그럼 나중에 뵈겠습니다."

운영자 메일: substance9@hanmail.net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002년 7월 26일에 결성한 동성애자단체연대체입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삶과 그 가치를 박탈하고자 하는 도덕적, 종교적, 통념적, 정치적, 법률적 행위들로부터 동성애자들의 시민적 권리들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투쟁을 할 것을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 성적 소수자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몇몇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자 구성체들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의 성적소수자들 뿐 아니라 국제적 조직체의 성적소수자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 연대하여 한국성적소수자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보다 나은 한국 동성애자들의 삶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성의 억압에 근간 하는 모든 억압, 즉 여성,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등 기타의 모든 성 억압적 토대들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며 행동할 것입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유, 즉 외적, 내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들로 행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행위들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사회의 억압 받고 차별 받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에이즈감염인, 어린이, 노인, 빈곤층, 외국인 에이즈감염인 등에게 행해지는 모든 비도덕적, 비이성적 소외와 억압,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투쟁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은 한국시민단체사회 속에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관념적 '인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교육하여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 모임 <러브포원>, 이화레즈비언인 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전화 : (02)703-3542 FAX : (02)703-3543

E-MAIL : admin@lgbtkorea.org

Homepage : www.lgbt.or.kr

후원계좌 : 조흥은행 333-04-765635(예금주 : 박수진, 한동연)

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탄생!

<http://www.ildaro.com>

그.여.자.들.의.물.결.일다!

2003년 5월 1일,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30여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바로 여러분이 원하던 매체입니다.

1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묻혀있습니다. 여성들의 의지와 욕구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왔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해줄 매체가 필요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어떤 매체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소수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말합니다.

'일다'가 추구하는 여성주의는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념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은 제외돼왔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기득권이 아닌 소수자의 시선을 견지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인권전문매체로 성장하겠습니다.

1 다양하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듭니다.

여성주의에 성역은 없습니다. 여성주의 담론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이들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판과 성찰이 없이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독자들과 함께 논쟁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획일화된 방식으로 여성문화를 바라보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형성해나갈 것입니다.

1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경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일다'의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 속에서 접아낸 경험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분이라면 유명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다'의 제정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마련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꾸려나갈 것입니다.

생쓰투

변태소년들의 THANKS TO~쿠첸

실버

처음하는 문화제라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별로 한 일은 없지만서도 ~~~

저희 '변태'의 문화제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변태 staff들~ 다들 수고했어요!!

MoBlus

혼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백만가지 질문에
에 답안지가 되어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취인

스무살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발악 중이었는데,
그렇지만 게으르던 비릇은 떨쳐낼 수가 없나봅니다.
글하나 제대로 짜내지 못해서 무척이나 미안해요.

매우매우 좋은 사람들, 변태 스태프들, 모두 수고 했어요.
언제나 행복합시다! (이번학기 학점이 펍 걱정일테지만;;)

☆special : 늘 고마운 사람...

나도, 당신도,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것,
잊지말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HJ씨 //o//♡

김꾸

thanks to 쓰기 전에, sorry to 를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대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것, 모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해요. 문화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여위, 총학, 강연회 맡아주신 끼리끼리 간사님, 일다 편집장님-에게 고맙고, 서로의 판타지가 되리라 작정한(나만) 우리 변태 식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이화의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고마워요. 그대들이 있으니까 이번 문화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화의 이성애자 여러분에게도 애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보내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리고 별 것 아닌 일로 부리는 내 투정, 혼자서 다 받아준 우리 오빠. 또 많은 힘이 되어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언니. 별의 별 꼴 다보면서 함께 울었던 우리 자매까지, 모두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연애같은 거 못해도, 나는 변태임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렇다고 씨발,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커밍아웃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있으면 아구창 날아간다-_-

루키메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별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문화제 준비하는거 재미있었어요..



siro

변태, 다들 수고했다. 다들, 내 짜증 받아주느라..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식구들. 쫘루와 예림언니와 통언니에게 감사.

정신적인 버팀목인 끼리끼리 식구들-백, 재키, 아자-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ㅋㅋㅋ 재밌다...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제작. 자료집 편집해주신 개리개리의 에리님

강현호, 그리고 글을 주신 개리개리의 박동님

또 강현호, 글을 주신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여울님

개리개리

감사드립니다.

영화제 준비해주신 이화여대 총학생회

퍼포먼스 해주신 이화여성위원회

토론회 함께 준비해주신 본틀-간악여모, 이대여위, 개리개리

감사드립니다.

여린, 개피

이화 데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첫 번째 데즈비언문화제 자료집

2003.5.13 ~ 5.15